



사라져 가는 구전 자원을 발굴해 문화·관광상품으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써 구전 자원의 가치를 살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는 게 구전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시범사업의 취지다. 사진, 손대성 기자

옛날이야기도 돈이 된다

구전 자원 활용해 문화·관광 상품 개발
 농진청, 구문소·서화·양구 등 10개 시범사업 추진

이 주 먼 옛날, 낙원으로 불릴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구멍이 있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구문소(求門沼)가 있었다. 어느 날 낚시꾼이 구문소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용궁으로 잡혀 갔다. 바닷속 용왕은 "왜 물고기를 잡느냐?"며 그를 다그치다 "아내와 어린 아들의 입에 풀칠할 게 없어 할 수 없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하소연에 그만 마음이 녹아 내렸다. 용왕은 무거운 벌을 내리는 대

신 낚시꾼이 평생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산해진미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 줬다. 배가 무척 고향던 낚시꾼은 입에 군침이 절로 돌았지만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몰래 떡 하나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윽고 풀려난 낚시꾼은 용궁에서 3일 만에 육지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있었다.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주려던 떡을 꺼

마을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구전 자원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거듭나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진청이 벌이는 ‘구전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시범사업’이 그 밑거름이다.



용을 의인화해 만든 구문소마을 캐릭터. 이 마을은 요즘 용궁 전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을 맞을 채비로 분주하다. 사진제공_ 농촌진흥청

내 보니 너무 딱딱하게 굳어 먹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용궁에서 준 귀한 떡을 내다 버리기는 아까워 쌀독에 고이 넣어 뒀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이 쌀독에서 쌀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낚시꾼은 부자가 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쌀을 나눠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구문소마을에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이다. 구문소마을이 아니라도 웬만한 시골에 가면 지금도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있는 얘깃거리가 적지 않다. 대개는 가볍게 흘러버리거나 듣고 난 후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하찮은 이야기들이 문화·관광상품으로 거듭나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어 화제다. 농촌진흥청이 벌이는 ‘구전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시범사업’이 그 밑거름이다.

구전 자원을 찾아라

농진청은 최근 전국 곳곳의 농촌을 대상으로 구전 자원을 발굴한 뒤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상품화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자료 수집과 기록은 이미 지난해에 착수했고 올해에는 구체적인 상품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며 옛날이야기를 듣거나 농사 기술, 생활의

지혜 등을 폭넓게 발굴해 왔다.

이중 상품 가치가 될 만한 것을 따로 뽑아내 성격과 특성에 따라 이야기책으로 만들거나 역할극을 구성하고 민속놀이, 마을축제 등 구체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중이다. 유력한 농진청 농촌자원과 지도사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농사 기술, 생활의 지혜 중에는 구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상당수”라고 전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구전 자원이 사라져 버리면 복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전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문화·관광상품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들 자원의 가치를 살리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농진청은 우선 구문소마을을 비롯해 경남 사천 성방마을, 전남 남원 서매리, 전북 무안 월선리, 강원도 양구 양구읍, 제주도 서귀포 서홍동 등 전국의 10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마다 전해지는 다양한 옛날이야기들

구문소마을은 최근 용궁 전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을 맞을 채비에 분주하다. 전설의 내용에 어울리게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고 마을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만들었다. 용궁 전설에 탄탄하게 살을 붙인 후 역할극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은 마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불러들여 농가의 꾸준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진_박지호 기자

으로 재현해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직접 배우로 분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험이 끝나면 향아리에서 떡 대신 오복(五福)을 상징하는 돌 5개를 골라 소원을 적게 한 다음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팔찌나 장신구 등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경기도 여주의 서화마을은 먼 옛날 강원도 원주의 원님이 한양에서 돌아올 때 쉬어 가던 곳이다. 그때마다 화려하게 마을에 나타났던 원님의 행차는 조용하고 평범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구경거리이자 화젯거리가 됐을 게 분명하다. 서화마을은 그 옛날에 있던 원님 행차를 활용해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다. 이와 동시에 생태달력 만들기, 물웅덩이 생태 체험, 전통 떡인 '여주산병' 만들기 등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개발했다.

전라도 순천의 운룡마을은 이름에서도 쉽게 연상되듯이 오래 전 용이 내려와 살던 마을로 유명하다. 이 마을은 65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의 성씨

와 인물, 사진, 경관 등을 활용해 마을 안내 이야기를 개발하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약초에 착안해 약초둘레길 지도도 만들었다.


충청남도 금산의 평촌마을에는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2개 있다. 농바우 끄시기와 물떼기 농요가 그것이다. 농바우 끄시기는 '농(籠)바위 끌기'라는 뜻의 사투리이며 농바우는 반달이 농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바위를 일컫는 말이다. 일종의 기우제로 농바우 아래를 흐르는 계곡물에 여인네들이 알몸으로 떼 지어 들어가 바가지로 물을 퍼서 끼었으며 물장난 치고 놀면 하늘이 보고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에서 유래했다.

물떼기 농요는 농사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공동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모 심는 소리와 흥을 돋우는 소리로 이뤄져 있다. 농진청은 공연 프로그램에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이고 금산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과 가축나무 잎을 이용한 식품도 개발해 널리 알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상품

마을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농진청 유 지도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나 자료로 체계화되고 눈에 보이는 상품으로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들 상품이 조만간 전국에 공개된 후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안옥선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단순한 농사 체험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이 마을마다 실용화된다면 마을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시사철 관광객을 불러들여 농촌의 꾸준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그는 “사소한 옛날이야기도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 마을이 입증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진청은 앞으로 각 마을이 개발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 구전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시범사업 개발 콘텐츠

구분	대상	사업 내용	개발 콘텐츠
경기 여주	북내면 서화리 (서화마을)	이야기가 있는 마을길 조성 전통 먹을거리 발굴	- 이야기 지도
			- 전통 농법 체험
			- 전통 떡 만들기
강원 태백	구문소동 (구문소마을)	구문소 용궁 전설의 관광 상품화 및 전통 민속문화 전승	- 마을 이미지와 캐릭터 개발
			- 용궁 전설을 활용한 스토리 북
			- 전통놀이 체험
강원 양구	양구읍	양구 지역에서 구전돼 온 전통주 발굴 및 상품화	- 지역 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 브랜드 작업
충남 금산	부리면 평촌리	물떼기 농요와 농바우 끄시기 보존회를 활용한 소득화 사업	- 무형문화재와 민속관련 구전을 연계한 체험 스토리 개발
			- 전통 인삼밭 조성
			- 물떼기 농요, 농바우 끄시기 등을 활용한 공연
			- 가족나무 상품화
전북 남원	금지면 서매리	남원시 금지면 만학동 야생채 제조	- 차 개발
			- 차와 관련된 이야기 발굴
			- 차 상자 제작
전남 순천	주암면 운룡리	곰보배추 등 구전 자원을 체계화해 농가 소득과 농촌 체험 스토리텔링	- 마을 가이드 스토리 및 체험 개발
			- 지명과 약초 관련 구전 자료로 약초둘레길 스토리텔링 및 이야기 지도 제작
전남 무안	청계면 월선리	월선 권역 마을 자원 찾기 및 상품화	- 구전 활용 마을 길 스토리텔링
			- 마을 음식 상차림
			- 마을 축제
경남 사천	곰명면 성방리 (성방마을)	전통주와 전통놀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 전통놀이 놀이 체험
			- 마을 샘 이야기 발굴
			- 전통주 체험
			- 마을 지도 제작
경남 창녕	대합면 신당리	산야초를 이용한 소득원 개발 및 버드나무 활용	- 버드나무 체험 프로 그램
			- 가시연꽃 자료 발굴
제주	서귀포 서흥동	신서란을 이용한 섬유 상품화	- 신서란 직물 및 섬유제품 제작

*자료: 농촌진흥청